

한동대 경상권 교육기부센터, 나인랩스 교육기부 프로그램

오혜민 기자 | 승인 2018.08.02 10:01

교육기부 기관과 단체 발굴, 기관 맞춤 프로그램 개발과 수혜자 매칭 등 적극 활동



[대학저널 오혜민 기자]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경상권 교육기부센터(센터장 정숙희 교수)는 강구정보고등학교에 나인랩스 교육기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나인랩스는 경북 구미시에 있는 3D프린터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다.

7월 11일 나인랩스(대표 박성호)는 영덕 강구정보고등학교 1, 2학년 29명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청년창업CEO 직업인 초청 강연회에서 '창업과 3D프린터'라는 주제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기업 소개 ▲창업의 동기 및 과정 ▲청년창업의 방법 ▲3D프린터란? ▲3D프린터의 종류와 원리 소개 ▲3D프린터 관련 직업 소개 ▲질의응답 및 마무리 등으로 구성됐다.

강구정보고등학교 김종원 교장은 교육기부 강의를 제공한 나인랩스 박성호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강구정보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우리 학생들이 청년창업에 관심이 많은데 청년창업과 더불어 미래 유망 직업과 관련된 3D프린터까지 함께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나인랩스 대표님을 본받아 더 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창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인랩스 박성호 대표는 "학생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3D프린터를 접목해 자신만의 상상력을 무한으로 펼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센터는 지역 단위의 교육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권(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의 교육기부 기관과 단체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기관 맞춤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에 적합한 수혜자 매칭 등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나인랩스는 현재 해외시장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또 시·도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개인고객들의 시제품을 제작·개발하며 대구·경북청년창업사관학교의 지원을 받아 제품을 고도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혜민 기자